

정호연 “미국서 한국 축구 힘 보여주겠다”

광주FC에서 미네소타로 이적...미국 프로축구 22일 개막
“먼저 입단한 정상빈 있어서 든든...적응 잘해 활약할 것”

“해외파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다”면서 웃은 정호연이 “빨리 적응 끝내고 좋은 활약을 선보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광주FC의 핵심 멤버로 중원을 누비던 정호연은 낮은 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일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MLS)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와의 정식 계약 소식을 전하면서 광주 팬들과 작별을 고했다.

금하고 출신으로 단국대를 거쳐 2022시즌 광주 유니폼을 입고 프로 생활을 시작한 그는 데뷔 시즌부터 주전 자리를 꿰차면서 이정호 감독의 황태자로 등극했다. K리그1 영플레이어상 수상자이기도 한 그는 지난해에는 국가대표로 발탁돼 A매치 데뷔전도 치렀다.

정호연은 올 시즌 해외 무대에서 한 단계 성장을 노리고 있다.

지난주 K리그1이 개막한 데 이어 22일에는 MLS가 2025시즌 대장정을 시작한다. 정호연은 뒤늦게 팀에 합류한 만큼 ‘적응’을 우선 목표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호연은 “소통이 안 되는 게 제일 힘들다. 다가가고 싶어도 말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어렵다. 대중적으로 하는 데 하면서도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계속 들어서 빨리 영어를 배우려고 하고 있다”며 “와서 3일 정도 됐을 때 해외파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다. 성격마다 다르겠지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언어적인 어려움 속에 비자 발급, 집 구하기 등 축구 외적인 부분까지 처리하느라 정호연에게는 정신없는 시간이었다.

그래도 그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 지난 2023년부터 미네소타에서 뛰고 있는 정상빈이 정호연의 동료이자 가이드 역할까지 해주고 있다.

“선수 겸 통역을 하고 있다”며 웃은 정상빈은 “간단한 의사소통은 할 수 있으니까 선수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호연이 형이 원하는 부분을 듣고 전달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축구 언어는 같지만 세밀한 소통이 쉽지 않은 만큼 정호연은 하루하루 적응하고 배우고 있다. 광주와의 다른 축구도 정호연을 바쁘게 한다.

정호연은 “힘하고 스피드 그리고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많이 뛰면서 수비 가담에 역할을 해야 한다. 상대가 정비가 되면 내려서서 하는 팀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커버하는 걸 중점적으로 지시받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가장 많은 시간 그라운드를 누볐던, 뛰는 것은 자신 있는 정호연이지만 뛰는 것도 차이가 있다.

정호연은 “뛰는 것도 좀 다르다. 광주에서는 위아래로 가는 게 많은데, 이곳에서는 옆으로 슬라이딩하는 그런 게 많아서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먼저 미국 축구를 경험한 정상빈도 “피지컬 이런 게 많이 다른데 압박할 때 더 강하게 하고, 수비 개념도 한국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 따라가면서 하는 수비를 어려웠을 때부터 배웠는데, 한 번에 담벼루고 그만큼 강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며 “미국 축구는 다이내믹하고 양 팀 다 공격적인 축구를 많이 추구한다. 내려서서 일단 수비하고 기다리는 걸 우리 팀이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공수 전환도 많고 다이나믹한 축구를 한다”고 설명했다.

생활부터 축구까지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준비하고 있는 정호연은 정상빈의 조언대로 긴 호흡으로 시즌을 보낼 생각이다.

정호연은 “상빈이가 너무 급할 필요 없다고 천천히 적응해 나가면 되는 거라고 말해주었다. 마음을 비우고 있다. 당장 뛰는 건 어렵다고 생각해서 천천히 팀에 적응하면서 맞춰가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천천히 또 완벽하게 적응하면서 자신의 매력을 보여주겠다는 정호연은 정상빈과 함께하는 골 손간도 그리고 있다.

정호연은 “상빈이한테 맞춰서 열심히 패스할 생각이다. 양자를 택할 수 있으면 상빈이를 택하도록 하겠다(웃음). 내가 때려도 되는 타이밍인지 어떤 게 더 골에 가까운 상황인지 보면서 많은 포인트를 생각하고 있다.”

정상빈도 “구단에서도 같은 나라 선수가 같이 뛰면서 내게 될 시너지 효과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나도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 골을 많이 넣을 수 있게 형이 어시스트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웃음). 공격수이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를 가장 많이 쌓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한국에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정호연은 몸은 멀리 떠나있지만 광주에 대한 마음은 그대로 두고, 좋은 활약으로 광주를 알리겠다는 각오다.

“여기 와서도 광주 경기 챙겨보고 있다. ACLE 산중전 전반전은 못 봤는데 (이)민기 형 골로 돼 있어서 이게 맞아 싶었다.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서 복을 받은 것 같다”고 웃은 정호연은 “궁금하고 기대돼서 광주 경기 많이 챙겨볼 것 같다. 팬들 건강하시고 미네소타 경기 많이 보러와 주시면 팬서비스 열심히 하겠다.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며 각오를 언급했다.

/인디오 클사진=김여울 기자 wool@



코헨 밸리 인터테이셔널 참가를 위해 미국 인디오를 찾은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의 정호연(오른쪽)이 팀 동료 정상빈과 숙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FC가 돌아온 에이스 헤이스를 앞세워 23일 전북현대와의 원정경기에서 2025시즌 첫승을 노린다.

<광주FC 제공>

광주FC “강철멘탈로 첫 승 사냥”

23일 전북현대와 K리그1 2R...아침 강행군에 속 다양한 전력 가동

광주FC가 첫승을 노리며 전북 원정에 나선다.

광주는 23일 오후 4시 30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현대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2025 2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지난 15일 안방에서 수원FC와 시즌 개막전을 치렀던 광주는 이 경기에서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유효슈팅 등에서도 앞선 모습을 보였지만 골문을 열지 못하면서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돌아온 에이스 헤이스와 함께 박인혁, 박정인 등 새로 팀에 합류한 선수들이 기존 선수들과 좋은 호흡을 보여줬다. 새 얼굴인 민

상기도 안영규와 베레랑 센터백 라인을 구축하면서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광주는 개막전 이후 18일에는 부리람 유나이티드(태국)와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 스테이지 8차전도 치렀다.

이 경기에서는 아쉬움과 가능성을 동시에 봤다. 초반 우세하게 경기를 운영하고도 2골을 먼저 내렸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안정감을 찾은 광주는 후반전 연달아 터진 오후성의 골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시원한 두 골을 장식한 오후성은 공격 장면 외에도 좋은 움직임도 보여주면서 기대감을 키웠다. 전북은 지난 시즌 강등권에서 자존심을 구기기도

했지만 전통의 강호다.

지난해 부진을 보며 삼야 뜨거운 겨울을 보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출신 거스 포엣 감독이 지휘봉을 맡겼고 송범근, 최우진 등 국가대표급 선수를 영입하면서 스쿼트를 보강했다. 195cm 장신 공격수 콤파노를 전방에 배치하는 등 지난 시즌과는 다른 전력과 분위기로 새 시즌을 맞았다.

광주는 초반부터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ACLE 두 경기를 소화하느라 매 경기 다양한 조합으로 전력을 가동하고 있다.

이정호 감독은 박인혁, 헤이스, 박정인, 신장무, 오후성 등 서로 다른 장점과 개성의 선수들을 활용해 초반 강행군을 펼쳐져 있다.

실전 경기를 이어가면서 ‘원팀’으로 빠르게 변모한 광주가 전주성에서 시즌 첫 승을 신고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 천안 원정으로 승격 ‘시동’

22일 K리그2 시즌 개막전

전남드래곤즈가 천안 원정을 통해 승격 도전에 나선다.

전남드래곤즈는 22일 오후 2시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천안시티FC를 상대로 2025시즌 K리그2 개막전을 치른다.

K리그2는 올 시즌 화성FC의 가세로 14개 구단 체제로 가동된다. 변화의 시즌, 전남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남은 지난 시즌 충남아산을 승강 플레이오프로 이끈 김현석 감독에게 새로 지휘봉을 맡기고 올 시즌을 준비했다. 새로운 사령탑 체제에서 선수단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전남은 새로 팀을 구성하고 원점에서 승격을 위한 또 다른 도전에 나선다.

해결사로 활약해온 발디비아의 어깨가 더 무거워진 시즌이다. 발디비아는 구단 역사상 첫 외국인 주장을 맡으면서 그라운드 안팎에서 역할이 더 막중해졌다.

이번 천안전은 전남 원정 10연전의 시작점이다.

전남은 광양축구전용구장 잔디 교체 공사로 인해 초반 원정 일정을 이어간다. 홈 개막전은 5월

11일 성남FC와의 경기를 통해 치러진다.

긴 원정길을 돌아야 하는 만큼 컨디션 관리가 초반 변수가 될 전망이다.

탄탄한 수비도 전남 승격 도전에 중요한 과제다. 전남은 지난 시즌 61골을 터트리면서 서울이랜드(62골)에 이어 득점 2위를 장식했다. 하지만 50골을 허용하면서 실점 부문에서는 10위에 그쳤다.

천안은 올 시즌을 앞두고 이정협을 영입했고 10명의 신인도 수혈했지만 지난 시즌 K리그2 득점왕 모따가 떠났고, 톤가라가 유일한 외국인 선수다. 전남이 모따가 빠진 천안을 상대로 시즌 개막전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22일 막을 올리는 K리그2는 11월 23일 까지 39라운드 대결을 갖는다.

정규시즌 1위팀이 ‘우승팀’ 자격으로 K리그1으로 자동 승격한다. 2위는 K리그1 11위 팀과 승강플레이오프를 갖고 승격을 노린다.

K리그2 3-5위팀은 가을전쟁을 벌이게 되며, 생존팀이 K리그1 10위 팀과 승강플레이오프를 치른다.

11월 27일 준플레이오프가 진행되고, 11월 30일에는 플레이오프가 열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 축구’ 유럽 챔스리그 맹활약

이강인·김민재·황인범 등 태극전사 16강서 경쟁

역대 최다 3명의 태극전사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 무대에서 경쟁한다.

‘골든보이’ 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은 20일 열린 2024-2025 UCL 16강 플레이오프(PO) 2차전 홈 경기에서 브레스트(프랑스)를 7-0으로 완파해 1, 2차전 합계 10-0 압승을 거두고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팀이 16강에 오르면서 이강인은 두 시즌 연속으로 유럽 최고 무대의 토너먼트에서 실력을 뽐낼 수 있게 됐다.

또 ‘철기둥’ 김민재가 뛰는 바이에른 뮌헨(독일)과 대표팀 ‘중원의 핵’ 황인범의 소속팀 페예노르트(네덜란드)가 나란히 UCL 16강에 올랐다. 뮌헨은 셀틱을 합계 3-2로, 페예노르트는 이탈리아 명문 AC밀란을 합계 2-1로 따돌렸다.

김민재, 황인범에 이남 이강인까지 16강 대열

에 합류하면서 올 시즌 UCL 16강 무대에선 한국인 3명이 활약하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게 됐다.

한국 선수가 3명이나 UCL 토너먼트에서 각 팀의 주축으로 경쟁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박지성, 설기현, 이영표(이상 은퇴), 기성용(FC서울) 등이 활약한 2000~2010년대 중반까지는 복수의 선수가 UCL 16강 무대를 밟는 일 자체가 드물었다.

2011~2012시즌 박주영(아스널), 박주호(바젤), 김인성(모스크바·이상 당시 소속팀)의 소속팀이 모두 UCL 16강에 오른 바 있으나 팀의 주축이라 할 만한 선수는 박주호뿐이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 팬들에게 UCL은 손흥민(토트넘)의 독무대나 마찬가지였다. 손흥민은 UCL에서 아시아 선수 통산 최다 19골 대기록을 썼다.

/연남뉴스